



## 불교 브랜드는 불자 손에 달려

### 사찰음식, 템플스테이 등에 전략적 마케팅 도입 시급

이명박 대통령이 4월 8일 제4차 국가브랜드위원회 보고회에서 “사찰, 서원과 같은 전통문화의 가치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일이 한국의 이미지를 신장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한 발언이 화제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불교를 종교로 보기 보다는 2000년 동안 한민족의 삶에 녹아든 전통의 한 단면으로 느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 외에도 사회경쟁이 심화되고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전통문화를 접하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불교 문화의 필요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퇴유)가 3월 29일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불교 및 스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응답자의 67.7%)은 불교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의 조사 결과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10명 중 3명(응답자의 33%)이 전통문화의 보존과 육성을 성장동력으로 꼽았다는 점이다. 불교문화와 민족 전통으로 생각하는 사회인식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교명상 등 수행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열기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더구나 참선, 절 수행 등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해 참선 수행을 도입하는 학교가 늘고 있는가 하면 정기적으로 불교 수행을 배우고 익히는 수행단체들도 크게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전국적으로 10여 곳의 사찰음식 전문점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전문 사찰음식점은 채식 열풍에 편승해 해마다 10%가 넘는 매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이를 소개한 책과 잡지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하면 불교전통문화에 가미한 축제제도 대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세계유일의 ‘등축제’인 연등축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발돋움했다. 불교전통문화와 민속문화가 접목된 연등축제는 지난해 외국인인을 포함, 총 30만 명이 참가하면서 대중적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여기에 고즈넉한 산사에서 펼쳐지는 산사음악회는 문화소외지역에 놓여 있던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면서 매년 전국적으로 300여개 사찰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불교전통문화들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불교의 대중화도 상대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상품은 모방하기 쉬우나 그 콘텐츠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소비자의 신뢰까지 모방하지는 못한다. 그런 면에서 1700년 이상의 신뢰를 쌓아 온 불교 문화 콘텐츠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한번 실추된 불교 이미지는 회복하는데 그만큼 오랜 기간이 걸린다. 불교문화 콘텐츠의 개발과 유지, 그 수요는 각 사찰이나 종단에서 긴 시간동안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하다.

한 스님은 불교계에는 문화콘텐츠화 할 것들이 많다. 전문적인 마케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면 그만큼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문화·포교 또한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7면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국의 사찰이 연등과 장엄 등 제작 등 본격적인 봉축행사 준비에 들어갔다. 사진은 4월 14일 안양 한마음선원 청년회원이 제등행렬에 동참할 보현등에 채색을 하고 있는 모습. 박재완 기자

## 전국은 지금, 봉축 열기로 뜨겁다

### 봉축위, 4월 11일~5월 10일 봉축기간 선포

불기255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가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을 주제로 4월 11~5월 10일 전국에서 다양하게 펼쳐진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4월 11일~5월 10일을 봉축기간으로 선포하고, 이 기간중 지역·단체·사찰별 장엄등 제작과 제등행렬·연등축제·봉축법요 등을 개최한다.

서울 지역에서는 4월 11일 전국병원불자연합회가 각 병원 병실을 방문해 연꽃등을 나눠준 것을 비롯해, 19일 한국불교꽃예술전 등이 개막돼 부처님오신 뜻의 봉축했다.

이어 22일 장애인 군부대 견학(해군), 23일 찬불율동제 어린이 연꽃노래잔치(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공연장, 오후 1시)와 불교 108울트라 마라톤대회(조계사), 24일 난치병 어린이 돕기 3000배 정진기도(조계사), 25일 연등장엄전(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6일 시청앞 장엄등 점등(오후 7시)과 정계전 등전시회 등이 열린다.

봉축위원회는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등축제, 전통의 멋과 흥이 넘치는 전통문화축제, 신명나고 역동적인 참여축제, 세계인과 함께하는 국제축제를 목표로 올해 연등회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차주상보) 조동섭 기자

## 인환·정관·암도·근일 스님

### 조계종 원로의원 선출



인환 스님



정관 스님



암도 스님



근일 스님

조계종 원로의원에 인환·정관·암도·근일 스님이 선출됐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는 4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37차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신임 원로의원 인환 스님(81)은 1953년 효선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53년과 1956년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현재 조계종 법계위원,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을 맡고 있다. 정관 스님(79)은 1954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54년과 1957년 각각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현재 영주암 회주, 사단법인 불국토 대표이사이다. 암도 스님(73)은 1955년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55년과 1964년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백양사 주지와 총무원 부원장, 포교원장, 교육원장, 중앙승가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 근일 스님(72)은 1961년 도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1년과 1967년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현재 교운사 조실로 있다.

조동섭 기자

## 조계종 교육불사 뜻 모은다

### 27일, ‘교육불사 후원의 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는 4월 27일 저녁 6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교육불사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후원의 밤’은 ‘교육불사’의 중요성을 사부대중이 모두 공감하고 이를 종단적으로 확산시켜 교육불사가 성공적으로 회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수덕사 방장 스님의 격려사, 총무원장스님의 인사말, 교육기금 전달과 가수 이은미·장사의 님의 음성공양 등이 진행된다.

교육원장 현은 스님은 “‘교육불사 후원의 밤’을 통해 모아진 격려와 성원은 승가교육불사를 추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 832호 CONTENTS

▶12~13 특집  
간화선과 위빠사나



▶16~17 여성지도자를 만나다  
동국대 교수 해주 스님



▶19 현장속으로  
한국·대만 불교문화교류



농인향당  
농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합물 · 침향염주 · 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문의 02-3663-6777 www.nihwa.com

신상품  
**LED인등·전구**  
찬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해야”

### 5대 종교인 658명, 인도적 대북지원 재개 촉구

심각한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종교인의 성명서 가 발표됐다.

민족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은 4월 12일 프레젠테이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인 입장에서 식량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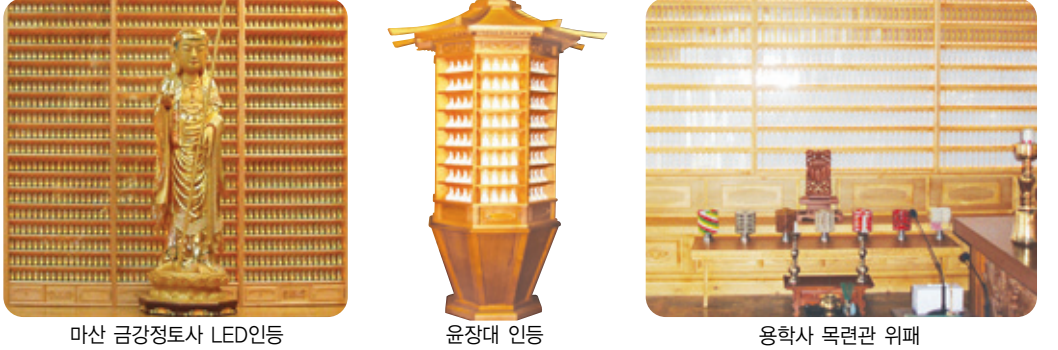
이번 성명서에 서명한 종교인은 658명으로 불교 117명, 가톨릭 217명, 개신교 136명 천도교 106명, 원불교 82명 등이다.

종교인들은 성명서에서 “민간단체들의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전면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천진영 기자

## 아름다운 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팔각접등 만월등 종등



미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윤장대 인등 용학사 목련관 위패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kwh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